

# 트럼프·시진핑 반년 만에 대좌... '공동 번영' 거듭 강조

## 미중정상회담

### 시진핑, '투키디데스 함정' 거론 美 대중국 견제 "동반자 돼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홍 강대국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양국 간 공존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大國)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대국의 지도자로서 함께 써내려 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그레이엄 엘리슨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대중화한 이론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홍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명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를 재정의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 2024년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이뤄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해당 이

론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공존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양국이 무역 전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하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통제와 견제를 우회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중미 간의 공동 이익은 이견보다 크며,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가 된다고 늘 믿어왔다"며 "양측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이 거

듭 입증됐으며, 미중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협력"이라며 "의견 차이와 마찰이 있을 때는 대등한 협의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양측 경제 무역 협상단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은 양국 국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며 "양측은 어렵게 얻어낸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적수가 아닌 파트너가 돼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하며, 신시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며 양국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고, 양국 국민 복지와 인류의 운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베이징에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우리의 만남은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 및 세계의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의 항로를 잘 인도하며 키를 잘 잡아가기를 기대한다"며 "2026년이 중미 관계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해가 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워시 美연준의장 후보자 인준안 상원 통과...주중 취임할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의 인준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인준안을 가결했다.

앞서 상원은 전날 워시 후보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의장 인준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현 의장 임기 종료 후 곧바로 연준 의장에 취임할 수 있

게 됐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으로, 파월 현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끝난다.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워시는 의장 자격으로 다음 달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됐다. FOMC 회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체다.

워시는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

조하면서 대통령의 요구보다는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연준이 제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으므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파월 현 의장을 강하게 비난해왔고, 워시를 의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큰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워시 연준'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 대낮에 13세기 성인 유골 도난...체코 발각

체코의 한 성당에 안치된 800년 전 성인의 유골이 도난당했다고 AF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체코 북부 마을 야블론네 프로데슈테디에 있는 성 라우렌시오·즈디슬라바 대성당에서 성인 즈디슬라바(1220-1252)의 두개골이 사라졌다.

경찰은 절도범이 예배당 내 성유물함을 깨부순 뒤 유골을 훔쳐간 걸로 보고 어두운 옷차림의 용의자가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성 즈디슬라바는 체코에서 국민 수호성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옛 보헤미아 귀족 출신으로 일곱살 때부터 숲에 들어가 기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199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시성됐다.

경찰 대변인 다그마르 소호로바는 "도난당한 유골의 가치를 확인 중이지만 역사적 가치는 분명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프라하 대주교 스타니슬라프 프리빌은 "야블론네에 살며 활동한 즈디슬라바를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의 경배 대상이었다"며 "역사적, 영적 가치가 큰 성유물을 누군가 대낮 교회에서 훔쳐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AI 악용 사이버공격 몇개월 안에 일상화"

펠로앨토 "AI 취약점 탐지 능력 뛰어나"

이른바 '미토스 충격'이라 불리는 인공지능(AI) 악용 사이버 보안 위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해킹 공격이 몇 개월 안에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사이버 보안기업 펠로앨토 네트워크의 리 클라리치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AI 주도 취약점 공격이 새로운 일상이 되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와 '클로드 오피스 47', 오픈AI의 'GPT-5.5-사이버' 등 최신 AI 모델을 시험한 결과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클라리치 CTO는 "몇 주 전만 해도 '우리가 모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 우리가 과대평가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취약점 발견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이다.

펠로앨토는 AI 모델의 취약점 탐지를 130개 이상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이번 달에 총 26건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평상시 한 달에 발견하는 취약점 약 5건과 비교해 5배 이상인 셈이다.

다만 펠로앨토는 이번에 발견된 보안 취약점이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펠로앨토는 공격자들이 이와 같은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전에 기업이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 AI 활용 취약점 선제 식별 ▲ 공격경로 축소 ▲ 방어체계 구축 ▲ 실시간 보안 운영 등을 권고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전문가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클로드 미토스'를 개발했으나, 보안 위협을 염려해 이를 주요 기업·기관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IT기업 등은 미토스 개발 이후 촉발된 보안 우려로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